



KIA 윤석민이 30일 서산구장에서 열린 한화와의 2군 경기에서 최고 145km의 직구로 5이닝 1실점의 피칭을 하며 1군 복귀에 속도를 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145km 찍고, 윤석민이 돌아온다

### 퓨처스리그 실전등판 5이닝 1실점 “통증 없고 컨디션도 좋아 만족한다” 어깨통증 한기주는 다시 수술대에

■ 윤석민 퓨처스 한화전 투구내용

5이닝 1실점
투구수 77개
2피안타 1실점
7K·1볼넷
최고구속 145km
슬라이더 136km

KIA 마운드에 화재와 악재가 겹쳤다. 어깨 통증으로 재활을 해왔던 에이스 윤석민의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역시 어깨 통증으로 복귀에 발목이 잡혔던 한기주는 다시 또 수술대에 오른다.

KIA 에이스 윤석민이 지난 30일 서산구장에서 열린 한화와의 퓨처스리그에 선발 등판해 5이닝 1실점을 기록했다.

77개의 공을 던진 윤석민의 기록은 2피안타 7탈삼진 1볼넷 1실점. 직구 최고 구속은 145km를 기록했고, 주무기인 슬라이더는 136km이 나왔다.

체인지업(124km)과 커브(115km) 등의 변화구도 시험하면서 지난 16일 넥센과의 퓨처스리그에 이어 두 번째 점검에 나섰다.

넥센전 이후 어깨 상태가 좋지 못해 재활군에서 복귀 속도를 조절했던 윤석민은 2주일 만의 실전 등판에서 쾌활은 성적을 냈다.

윤석민은 “스피드가 조금 더 나와야겠지만 공도 괜찮았고 피칭은 좋았다. 더 완벽하게 피칭을 할 수 있었는데 점수를 쥐서 아쉽기는 하다. 통증이 없고 컨디션도 좋다. 만족한다”고 밝혔다.

지난 넥센과의 등판 이후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자평했던 것과 달리 이번 등판에서는 ‘괜찮다’고 스스로 합격점을 줬다.

선동열 감독이 ‘완벽’을 강조하면서 서둘러 부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윤석민의 1군 준비가 끝나가면서 소사의 초반 부진과 서재응의 컨디션 난조로 어려움을 겪었던 선발진 운영에도 송용이 트릴 전망이다.

선발진 보강은 반갑지만 불펜의 약

### ‘10억 팔’ 한기주의 잔혹사

- ▶ 손가락 ..... 2011년 2차 수술
- ▶ 팔꿈치 ..... 2009년 수술
- ▶ 어깨 ..... 5월 6일 수술 예정

제가 아프다

윤석민과 달리 한기주의 어깨는 기약을 할 수 없게 됐다. 한기주는 팔꿈치와 손가락에 이어 오는 6일 서울에서 어깨 수술을 받기로 했다.

한기주는 2009년 시즌이 끝난 후 이뤄졌던 팔꿈치 수술을 받으며 처음으로 수술대에 올랐다. 2011년에는 손가락에 통증이 오면서 두 번째 수술을 받았다.

손가락 통증이 계속되면서 선수 생활의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지난 시즌이 끝난 후 미국으로 건너가 성공적으로 재수술을 끝내며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재활 막바지에 어깨에 문제

가 생겼다. 손가락에 집중했던 한기주는 최근 어깨 통증이 계속되면서 정밀진단을 받았고, 최근까지 이상 소견이 나오면서 수술을 놓고 고민을 해왔다.

입단 이후 팔꿈치와 손가락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KIA 압축기 불펜을 책임지는 등 무리가 계속되면서 어깨부상까지 이어진 것이다. 설상가상 파열 정도가 심하고 연골도 많이 닳은 상태에서 수술 이후와 재활과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5월 본격적인 피칭을 앞두고 있었던 만큼 한기주의 수술은 팬들에게 더욱 아픈 소식이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일고·효천고 “황금사자기 휘날리자”

### 대진표 확정, 11일부터 열전 ... 군산상고·동성고도 우승 도전

제67회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야구 대회 결고교야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대진이 확정됐다.

전라권 1위로 왕중왕전 티켓을 확보한 광주일고는 장충고와 첫 대결을 벌인다. 2위 효천고는 춘천고와 1라운드 경기를 치르며, 군산상고는 성남고와 상대한다. 막판 뒤집기로 마지막 티켓을 획득한 동성고는 배재고

와 16강을 다룬다.

이번 왕중왕전은 5월 11일부터 6월 9일까지 창원에서 열리며 지역예선을 통과한 광주일고·순천 효천고·군산상고·동성고(이상 전라권), 덕수고·취문고·배재고·성남고(이상 서울 A), 경기고·배명고·장충고·신일고(이상 서울 B), 경남고·제주고·울산공고·부산공고(이상 경상권 A),

상원고·대구고·경북고·마산고(이상 경상권 B), 공주고·청주고·북일고(이상 중부권), 아담고·춘천고·인창고·유신고(이상 경기권), 제주포고·강릉고·인천고(강원·인천권) 등 30개 팀이 우승에 도전한다.

한편 전라권에서는 효천고와의 최종전에서 완봉승을 기록한 광주일고 투수 윤준현이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

했다. 문지훈(광주일고)은 우수투수상을 받았다.

감투상과 수훈상은 각각 효천고 차명진과 광주일고 2루수 김원욱에게 돌아갔다. 동성고 1루수 김태선은 0.481(27타수13안타)의 타율을 기록하며 타격상, 진흥고 1루수 박진두는 9타점을 올리며 타점상의 주인공이 됐다. 박진두는 홈런상(1개)까지 2관왕을 기록했다. 진흥고 유격수 오겨례는 도루상(4개)을 수상했다.

광주일고의 우승을 이끈 김선섭 감독과 김순환 부장에게는 감독상과 공로상이 수여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관중 몰고다니는 KIA ... 두산전 잠실구장 만원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시즌 4차전이 열린 지난 30일 잠실구장에 만원 관중이 찾으면서 시즌 첫 평일 매진 기록이 만들어졌다.

1위 싸움을 하는 양팀의 맞대결답게 발매 51분 만에 표가 모두 팔려나가면서 2만7000석이 가득 찼다.

지난 13일 롯데와의 경기에 이어 두산의 두 번째 매진이다. 두산의 평일 매진은 지난해 5월 29일 KIA전 이후 337일 만이다. 지난해 두산 평일 홈경기 매진은 모두 3번이 나왔으며 이 중 두 경기가 KIA와의 승부였다.

이날 매진으로 KIA는 4경기 연속

만원 관중 앞에서 경기를 했다. 지난 주말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3연전이 모두 매진 사례를 이뤘다.

한편 올 시즌 KIA는 11번의 홈경기에서 10만9898명을 불러들이는 등 5번의 매진으로 홈 평균 관중 9991명을 기록하고 있다. 14차례 매진에 그친 지난 시즌의 평균관중(7493명)에 비해 33%가 증가한 수치다.

KIA는 홈경기 매진 행렬에 이어 원정경기에서도 관중을 몰고 다니며 초반 주춤했던 프로야구의 흥행에 불을 붙이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전남도 생활체육회 서울과 우호교류 활동

전남도 생활체육회가 지난달 29일 끝난 서울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해 우호교류 활동을 펼쳤다.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대회에서 전남은 게이트볼과 농구, 정구, 패러글라이딩 등 교류 종목에 참가해 서울시생활체육회 동호인들과 화합과 결속의 시간을 보냈다. 이번이 아홉 번째 교류다.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 대회 개회식에서는 2013 순천만 국제 정월박람회 홍보 현수막을 들고 입장에 전남을 알리는 역할도 했다.

/김여울기자 wool@

## 박지성 끊임없는 미국프로축구 ‘러브콜’

### QPR 강등 확정예 토론토FC 등 영입설

잉글랜드 프로축구 퀸스파크 레인저스(QPR)에서 뛰는 박지성(32)의 미국 프로축구 진출설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영국 신문 데일리메일은 30일(한국시간) “박지성이 아시아 시장에서 현수막을 들고 입장에 전남을 알리는 역할도 했다.”

단주에게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지성의 미국 진출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지성은 지난달에도 팀 동료였던 라이언 벨슨이 감독으로 있는 미국프로축구 토론토FC로의 이적설에 시달렸다. QPR의 강등이 확정되면서 박지성의 미국 진출설이 더욱 힘을 얻는 모양새다.

“박지성이 아시아 시장에서 팀을 옮기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

다.

특히 박지성은 시즌 중반부터 출전 기회도 제대로 잡지 못해 이적설의 집중 타깃이 됐다. 박지성의 주급은 7만 파운드(약 1억1900만원)로 알려졌다. 신문은 박지성이 이번 여름 QPR을 떠날 것이라며 행선지로 미국프로축구를 유력하게 꼽았다.

이 신문은 “미국프로축구 몇몇 구단에서 박지성 영입에 관심을 표했다”며 “이 가운데 QPR 동료였던



라이언 벨슨의 팀인 토론토FC에 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시장 확대 때문에 미국프로축구가 박지성을 영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박지성은 기량과 경험을 갖춘 동아시아 슈퍼스타”라며 “돈이 풍부한 동아시아 지역으로 세를 확장하려는 미국 프로축구에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우리 하는 남자

# YONAMJA

Fusion Family Restaurant

STEAK / PASTA / PIZZA / BEER

5월 중순 광주 유·스퀘어점

## OPEN

홀직원 | 주방직원 | 파티타이머  
즐겁게 함께할 가족모집

E-mail : rsh3366@hanmail.net

광주 유·스퀘어점 062) 673-7979